

12/10/17

설교 제목: 성도가 싸워 나가야 하는 내면의 죄성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7: 14-25

(롬 7:14)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롬 7: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롬 7:16)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롬 7:17)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롬 7: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롬 7: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롬 7:20)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절판주** 시 19:12

(롬 7: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롬 7: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롬 7: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롬 7: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7 장에서 이제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말하며 성도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이유와 율법의 본래 역할, 그리고 성도가 싸워 나가야 하는 내면의 죄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롬 7:1)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롬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법은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당사자가 죽으면 법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없어졌으므로 법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예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대통령 재직 당시 가족들이 불법을 저지른 일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봉하 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권 없음'으로 마감했습니다.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기소를 해 본들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고 율법에 대해 자유로와졌습니다.

죽은 사람을 기소해 보았자 법 집행을 당할 당사자가 없으니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율법의 심판으로 받아야만 하는 죄값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 주셔서 말끔하게 계산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법의 심판을 받을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죄 값을 치를 사람이 없어 그냥 덮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고로 건듯하면 수사를 재개하자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계산해 주셨기에 더이상 시비거리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같은 은혜를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위해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도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와졌다고 해서 죄를 범하고 방종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공포에서 벗어나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전장 15 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롬 7: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본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기만 한다면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지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 살 길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선과 악의 갈등이 있어 항상 서로 싸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하기 어려운 진실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롬 7:14)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롬 7: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남에게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이 내면의 갈등을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이 겪고 있다고 먼저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의 수궁을 풀어 냅니다.

요즈음 미국에서 예전에 성희롱 당한 여성들이 가해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에 눌러 아무말도 못하다가 'me too (나도 당했소)' 고백으로 자신들에게 성희롱을 행했던 사회 각계 인사들을 끌어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내가 하는 짓을 잘 모르겠다고 탄식하면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내 행동은 엉뚱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짓을 한다고 탄식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연약한지라 계속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롬 7:16)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롬 7:17)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범하기 원치 않는다는 것은 결국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범하여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내면에 아직도 자리잡고 있는 죄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롬 7: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롬 7: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롬 7:20)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도의 참된 자아인 속사람은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내면에 남아 있는 죄성이 율법을 범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롬 7: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롬 7: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롬 7: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두 정체 곧 선을 행하려는 참된 자아와 악을 행하려는 죄성의 잔재가 존재한다고 고백합니다.

중생한 참된 자아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지키려 노력하는데 반해 내면에 아직도 잔재해 있는 죄성이 중생한 자아와 충돌을 일으켜 자신을 죄의 법으로 잡아 끈다고 말합니다.

(롬 7: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간의 내면적 싸움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괴로와 합니다.

이것이 어디 사도 바울만의 괴로움이겠습니까?

성도된 우리 모두의 괴로움이고 안타까움입니다.

거룩하게 살겠다고 매일 다짐을 하면서도 순식간에 죄를 저지르고 난 후의 참담함을 모두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롬 7: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비록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 마음이 곤고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도의 거룩한 삶과 성화가 이와 같은 내적 싸움 가운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때때로 연약하여 죄에 떨어질지라도 최종적 구원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칭의로 성도는 영육 간의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성도가 탄식과 신음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자유는 죄와 방종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율법의 공포와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이제 성도된 우리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속에 잔재해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면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어 곤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당장은 내면적인 갈등과 싸움으로 인하여 곤고할지라도 종국에는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끝까지 견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